

어머니의 부부갈등, 애정-거부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행동통제 및 정서통제간 관계

민 하 영(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생애 초기 자기통제 능력은 성인기의 사회적 성공이나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변인임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부부갈등, 애정-거부적 양육행동 그리고 유아의 자기통제간 관계를 인과관계의 매개 과정을 토대로 살펴봄으로써 성인기 사회적 성공과 적응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유아기 자기통제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유아의 행동통제에 대한 어머니의 부부갈등 영향은 애정-거부적 양육행동에 의해 각각 매개되는가? 둘째, 유아의 정서통제에 대한 어머니의 부부갈등 영향은 애정-거부적 양육행동에 의해 각각 매개되는가?

자료는 O'Leary와 Porter(1980)의 부부갈등 척도(OPS), Rohner(1987)의 수용-거부 양육행동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한 나온숙과 이종인(2008)의 척도, 이정관과 양옥승(2003)의 유아의 자기통제 척도를 이용하여 대구경북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어머니 311명에게 질문지 조사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SPSS Win 15.0프로그램의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단순 및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통해 자료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어머니의 부부갈등은 유아의 행동통제에 영향을 미치나 이러한 영향은 애정-거부적 양육행동에 의해 완전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 매개 효과를 보인 것은 어머니의 부부갈등이 유아의 행동통제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가 보다, 부부갈등으로 인해 애정적 양육행동이 낮아지거나 거부적 양육행동이 강화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유아의 행동통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부부갈등의 spillover(파급)효과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부부갈등은 유아의 정서통제에 영향을 미치나 이러한 영향은 애정-거부적 양육행동에 의해 부분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행동통제와 달리 정서통제의 경우 어머니의 부부갈등이 부분 매개를 통해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은 어머니의 부부갈등이 유아의 정서통제의 사회학습관찰 대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어머니의 부부갈등은 실질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어머니 자신의 정서통제가 실패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높은 부부갈등은 유아에게 건강한 정서조절을 학습할 기회보다 취약한 또는 실패한 정서조절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어머니의 부부갈등이 유아의 정서통제에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정서통제에서도 부부갈등이 애정-거부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간접 영향을 미친 것은 부부갈등의 spillover(파급)효과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부갈등의 spillover(파급)효과 가설을 지지한다는 것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부부갈등에 의해 애정적 양육행동이 낮아지거나 거부적 양육행동이 강해지는 것과 같은 파급적 효과(spillover effect)에 영향받지 않으려 노력한다면 유아의 정서통제는 행동통제처럼 어머니의 부부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서 보호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